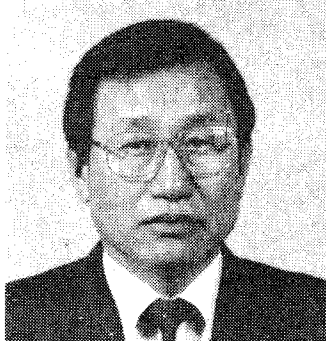


巫俗

한 민족의 정신사적 뿌리

한국무속의 역사적 맥락



김 대 콘 <문리대 교수·민속학>

본고는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고아주금호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열린 국제 사머니즘 학술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논문을 정리 요약한 원고로 한민족의 정신사적 뿌리를 이루는 한국 무속의 이해에 다 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註>

무속의 역사

현재의 공식적 입장에서 무(巫)를 영적기능에 기준을 두어 구분하면, 한국에는 강신무(降神巫)와 세습무(世襲巫), 두 유형이 전승되고 있다. 강신무에 관련된 문헌기록은 A.D. 13C 경의 이규보가 남긴 노루편서(老魯篇序)까지 거

슬러 올라가고, 사료에 나타난 무에 관한 최고의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전하는 신라 제2대 남신왕조(南新王條)로 A.D. 1C 초기이다. 삼한의 '天君'을 사회적으로 정착된 制度化된 무-세습무와 同義로 보는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세습무의 역사를 B.C. 1C 이상으로 소급할 볼 수도 있고, 또 고고학적 자료인 청동방울과 청동거울이 儀器로서 무속과 연관되는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한국무속의 역사가 청동기에서 초기 철기로 접어드는 B.

생활에서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또발상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한반도에는 청동기(하한신 B.C. 3C) 그 이전부터 강신무가 있었고, B.C. 1C 경에는 이에 한반도의 남부인 마한지역에 사회적으로 제도화하여 정착된 오늘날의 호남지역 세습무와 동계로 볼 수 있는 또(天君)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제도화 된 세습무는 한국 고대국가 형성과정에서 왕권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세습무는 강신무가 사회적으로 정착되면서 영역이 도래되며 제도화해 활동을 따라 세습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상이라 보인다. 이와같은 한민족의 기층적 종교현상인 무속을 한국의 종교사적 입장에서 보면, 외래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한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조직적 형태의 종교현상은 무속이라는 귀결점에 이른다. 무속은 이렇게 외래종교가 들어오기 전의 아득한 상고시대로부터 한민족의 종교적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 외래종교가 들어온 후로도 민간신앙으로서 한민족의 기층적 종교현상으로 존재하여 왔다. 외래종교가 들어오기 이전, 한민족의 종교를 무속으로 보는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이의를 예상할 수 있다.

를 중심으로 인간의 종교의식을 집약시킨 조직성을 갖고 있어서 고차적인 종교체제에 접근된 종교현상이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일반 자연종교현상에서 조직적 집합화의 체계적인 무속의 종교체제를 전제로 하여, 이것을 한국 재래 자연종교의 조직적 종교체제의 출발점으로 보는 입장이다. 두번째 문제는 한국무속이 북방의 시베리아, 몽고 등지의 사머니즘과 또 일본·중국 등지의 인접지역 무속과의 유사성 내지 계통상의 본질문제가 따르는데, 이 문제는 매우 광범위한 것이어서 무속의 역사적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로 미루고, 여기서는 한국 무속의 발생·전파문제에 앞서 한국이라는 지역적 대내 문제에 국한된 입장이 다. 다만 한국의 강신무의 포지션(possesion)타입으로 몽고·중국·일본 등지의 사머니즘의 사머니즘에 속해 맥이 같다는 것을 밝혀준다.

문화의 순으로 역시 문화의 적응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문화사 속에 무속·불교·도교·유교·기독교 등의 정신이 합류되어 온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무속은 이와같은 한국의 종교문화의 적응을 통해 한결같이 그 밑바탕에 깔려져서 무속이라는 정신사적 기층으로 그 속에 한국의 정신적 원소가 종교·문화의 에너지 원으로 존재하여 온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한국의 정신적 기반위에서 발을 붙이고 성장해 하였던 외래종교는 그 포교초창기부터 이 땅의 재래 무속적 민간사고와 타협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체내에는 언제나 재위소복(除危招福)의 무속적 민간사고가 잠복되어 속과 겉이 다른 한국적 종교로 성장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무속은 한국 전통예술의 근원을 종교적 입장에서 볼 때, 무속 속의 무가·무악·무무(巫舞)·제 등의, 분화된 종교적 원시예술의 종합체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각각 국문학·국악·민속무용·민속극 등의 분야로 분화·발전되어 갈 기틀이 된 것이라 생각되므로, 무속은 이상과 같은 분야에 걸친 한국 전통예술 형성의 원시적 기틀의 성격도 겸하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무속은 한국의 삶에 있는 현재적 기층종교현상으로서 불교·도교·유교·기독교 등의 외래종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아득한 상고시대로부터 한반도에 존재하여 온 한민족의 종교라 보인다. 또 외래종교가 들어온 이후에도 무속은 한결같이 한국종교의 역사적 지류로 한국인의 정신사적 기반이 되어 그 속에 한국의 정신적 원소가 한국문화의 에너지 원으로 저장되어 온 것이라 생각된다.

상고시대부터 한민족의 종교적 주류 형성 외래 종교...무속적 민간사고와 타협, 정착

C. 3C~B.C. 7C 경까지 소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또의 발생원인을 종교심리적인 면에서 분석해 들어갈 때, 그 발생 시기와 전파관계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남과 북에 따른 또 유형상의 성격변화는 지리·기후·역사적 배경에 따라 야기된 종교사적 변이 요인으로 보인다.

무속의 종교사적 기반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무속이 수 천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동안 한민족의 기층적인 종교적 현상으로 지리를 굳혀 온 끈질긴 종교적 생명력이다. 무속은 이렇게 한국인의 종교의식이 집약된 것으로 한민족의 정신속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생활화한 현재의 산 종교적

기록상으로 전하는 삼한시대의 제천신앙, 그리고 단군신화를 비롯한 가락국기, 박혁거세 신화 등의 국조신화(國祖神話) 기록에 전하는 하늘을 비롯한 산, 수림에 관계되는 신앙문제의 또 한국무속과 시베리아 사머니즘의 관련성 문제가 있어서 무속이 과연 고대 한민족의 종교를 대표하는 것이었으며, 또 한국에만 국한된 종교현상인가 하는 문제이다. 첫째 문제는 무속이 천·지·산·수·수목신앙 등의 일반 자연종교현상과 비교해 볼 때, 또라는 전문적 신직(神職)의 종교지도자

이와같이 무속은 원래부터 한민족의 생활 속에서 전승되어 오던 원시적 자연종교가 집약 조직화하여 그런대로 종교체제에 접근해 가려던 과도기적 형태의 것이었으며, 이런 무속의 기반 위에 불교·도교·유교·기독교 등의 외래종교가 들어와 종교의 적응(適應)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한국의 종교적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종교의 적응현상은 역사를 통해 볼 때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왕조에 이르는 불교문화, 조선왕조, 5백년의 유교문화, 개화기 이후 1백년의 서양 기독교

터 11월10일까지이며, 심사는 오는 11월17일이다. (문의처: 679-0181)

시 문화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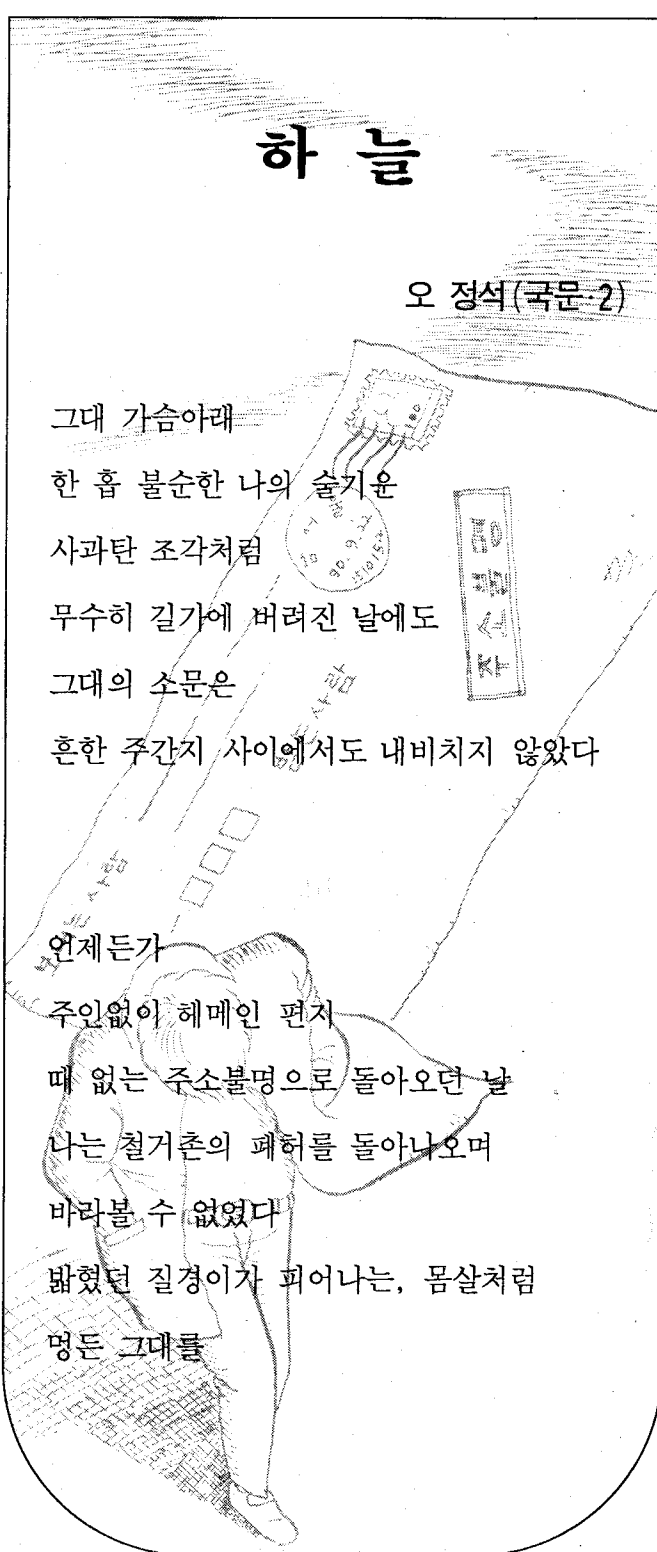
한국시문화회관은 11월1일 시의 날을 앞두고 한국 시문화회관 이전기념 '시문화제'를 오는 31일까지 종로구 명동동에 소재한 인텔 아트홀에서 개최한다. 행사내용으로는 시인·작가와와의 대화, 시화전, 시낭송회, 영화상

문화단신

영, 연극, 음악회, 백일장등이 마련되었다. (문의처: 764-6352)

판화·만화 교실 개척 창작실기 및 이론 학습

만남과 나눔의 터 '우리마당'은 판화와 만화의 표현양식에 대해 함께 배우고 창작하는 자리인 판화와 만화교실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하늘

오 정석(국문-2)

그대 가슴아래

한 흙 불순한 나의 슬기운

사과탄 조각처럼

무수히 길가에 버려진 날에도

그대의 소문은

흔한 주간지 사이에서도 내비치지 않았다

연제든가

주인없이 헤매인 편지

때 없는 주소불명으로 돌아오던 날

나는 철거촌의 폐허를 돌아나오며

바라볼 수 없었다

땀뻘던 질경이가 피어나는, 몸살처럼

명든 그대를

11월16일까지 매주 수요일 열리는 만화교실은 판화와 만화의 기초 창작실기 및 이론을 통해 삶의 표현양식으로써 미술을 함께 토론하며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회비는 재료비 포함해서 1만원이다. (문의처: 313-7617)

문화지 '통일예술' 창간 남·북 문화교류의 새 장

8·15범민족대회에 시기를 맞추어 '비주민족문화예술인협의회'에서는 남한-북한의 문인과 해외동포문인의 작품등을 묶어 남북문화교류의 직접적인 창구를 마련한 문화지 '통일예술'을 창간했다.

이번 창간호에서는 특집물 '통일을 염원하며 북한의 평화가 남한작가의 작품을 논한다'라는 제목으로 김지하, 고은 등의 작품 평론이 실렸다. 이번 창간호를 시작으로 앞으로 비주민족문화예술인협의회에서는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등 여타

부분에까지 영역을 확대해 계속 발간 할 계획이다.

김홍수 초대전

한 화면에 추상과 구상을 함께 배치, 이질적인 형식과 내용을 동시에 수용하는 서양화가 김홍수씨 초대전이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1월15일까지 열린다. 최근 파리 픽상부르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가진 바 있는 김홍수씨는 이 초대전에서 70년대 이후 작품 63점을 선보이고 있다. 환경남도 함흥 출신인 김씨는 도쿄미술학교를 졸업했으며 제1·2회 국전 특선을 수상했다.

미교과 졸업작품전 디자인등 작품70여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는 오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사범대 전시실에서 제22회 졸업작품전을 개최한다. 디자인 10명, 서양화 35명, 조각 7명, 한국화 8명등 총 60명의 작품 70여점이 전시된다.

이 동 선 <본고 국제평화연구소 연구원>

대우가족



“작은 손길 하나도 고귀한 이 가을에...”

우리나라 속담에 “가을이면 부지경이도 텅빈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녘에서, 먼 바다에서, 산골에서... 우리들의 가을은 이렇게 수확의 움직임들로 부산해집니다. 애써 심고 정성들여 가꾼 땅의 결실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다며 풍요한 햇빛과 물과 바람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부모와 이 땅의 평범한 많은 이들의 삶의 철학이 없었다면 가을의 거두어들임 또한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어진 삶은 물론

고추나 참깨, 밤아람, 버섯, 바다에서 건져올리는 해산물들... 그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고, 수확을 위한 그 어느 손길 하나도 더 없이 고귀한 이 가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그 귀한 손길들에 힘을 보태고 또한 내가 거둬야 할 수확물을 생각합니다. 그러하여,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나누는 일을 함께하는 이 땅의 어우러진 삶속에—

대우가 있습니다.